

# SK 텔레콤, 2019 년 2 분기 실적발표

- 매출 4 조 4,370 억원, 영업이익 3,228 억원, 순이익 2,591 억원 기록
- 무선 사업, 5G 1위로 매출 반등... 마케팅비용, 5G 네트워크 투자 등으로 수익 감소
- 미디어, 보안, 커머스 사업이 든든한 성장 버팀목...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주효
- “연내 5G 가입자 200 만 기대... 뉴 ICT 사업 확대해 기업가치 재평가 받을 것”

**엠바고: 배포 즉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컨퍼런스콜은 금일 15 시 예정이며, 아래 URL 통해 청취 가능합니다.**

(국문) [http://cc.onoffjoin.com/webcast/skt/skt2019Q2\\_kr.php](http://cc.onoffjoin.com/webcast/skt/skt2019Q2_kr.php)

(영문) [http://cc.onoffjoin.com/webcast/skt/skt2019Q2\\_en.php](http://cc.onoffjoin.com/webcast/skt/skt2019Q2_en.php)

[2019. 8. 2]

SK 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 www.sktelecom.com)이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9 년 2 분기 매출 4 조 4,370 억원, 영업이익 3,228 억원, 순이익 2,591 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2 일 밝혔다.

연결 기준 매출,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각각 2.4%, 0.1% 증가했다. 무선 사업 매출이 반등하고 미디어, 보안, 커머스 사업이 성장세를 이어가며 올해 1 분기보다 개선된 실적을 달성했다.

순이익은 SK 하이닉스의 지분법 이익 감소로 전 분기 대비 30.7% 줄었다.

## ■ 무선 사업, 5G 1 위로 7 분기 만에 매출 반등... 마케팅, 5G 투자 비용은 증가

SK 텔레콤은 지난 4 월 3 일 세계 최초 5G 개통 후 3 개월 만에 가입자 53 만명 ('19 년 6 월말 기준)을 확보해 5G 점유율 1 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별도 기준 매출은 2 조 8,477 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3% 늘었다. 무선 (MNO) 매출은 2017 년 4 분기부터 지속 하락하다가 7 분기만에 상승 전환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시행해 온 고객가치혁신 프로그램으로 인해 2 분기에도 휴대폰 가입자가 약 10 만명 순증했고, 0.9%의 낮은 해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2,752 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0.0% 감소했다. 마케팅 비용이 올해 1 분기보다 3.9% 늘었고, 5G 주파수 비용이 2 분기부터 처음 반영됐기 때문이다.

SK 텔레콤은 5G 가입 고객이 안정적인 네트워크와 차별화된 서비스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7 월 17 일 스위스 1 위 통신사 '스위스콤'과 세계 최초 5G 로밍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7 월 26 일 e 스포츠 중계를 실감나게 즐길 수 있는 5G AR·VR 서비스를 3 종을 출시했다.

하반기에도 전국 주요 지역에 고품질 네트워크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5G 서비스 중심으로 통신업계의 경쟁 패러다임을 바꿔 나갈 예정이다.

SK 텔레콤은 연내 5G 가입자가 200 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미디어, 보안, 커머스 사업 성장세 뚜렷... 하반기에도 성장 기대감 높여

미디어, 보안, 커머스 사업은 2 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동 사업의 2 분기 매출은 SK 텔레콤 전체 매출의 약 36%를 차지하며 든든한 성장 버팀목이 됐다. 지난해 4 대사업부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미디어 사업은 IPTV, UHD 가입자 증가로 양적, 질적 성장을 이뤘다. 2 분기 IPTV 매출은 3,221 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5.2%, 전 분기 대비 2.1% 증가했다.

SK 텔레콤 미디어 사업은 하반기에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옥수수'와 'POOQ'을 통합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OTT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SK 브로드밴드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티브로드의 합병을 추진해 가입자 800 만명 이상의 '종합 미디어 회사'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보안 사업은 2 분기에 ADT 캡스의 보안상품 판매 증가와 SK 인포섹의 융합보안 플랫폼 사업 확대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5%, 26.7% 늘었다.

SK 텔레콤은 T 맵주차, ADT 캡스-SK 인포섹의 융합보안 서비스 등 신규 사업을 필두로 연간 첫 1 조원대 보안 사업 매출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커머스 사업은 11 번가와 SK 스토아의 수익성 개선 노력을 통해 전 분기에 이어 2 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다. 하반기에도 온·오프라인 통합 결제환경을 제공하는 'SK페이'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견조한 성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윤풍영 SK 텔레콤 Corporate 센터장은 "5G 초시대에도 1 위 사업자의 위상을 이어갈 것"이라며, "미디어, 보안, 커머스 중심의 New ICT 사업을 지속 확대해 SK 텔레콤의 기업가치를 재평가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참고: <첨부 1> 연결 손익계산서 요약  
<첨부 2> 별도 손익계산서 요약

<첨부1> 연결 손익계산서 요약 (단위 : 억원)

구분	19.2Q	19.1Q	QoQ	18.2Q	YoY
매출	44,370	43,349	2.4%	41,543	6.8%
영업이익	3,228	3,226	0.1%	3,469	△6.9%
순이익	2,591	3,736	△30.7%	9,143	△71.7%

<첨부2> 별도 손익계산서 요약 (단위 : 억원)

구분	19.2Q	19.1Q	QoQ	18.2Q	YoY
매출	28,477	28,122	1.3%	29,418	△3.2%
영업이익	2,752	3,057	△10.0%	3,683	△25.3%
순이익	1,620	6,440	△74.8%	2,198	△26.3%

<끝>